

부록.

# 탐라순력도 속 서귀포





## 대정강사

1702년(숙종 28) 11월 12일, 대정현에 머물면서 시행한 강사의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 강사에는 도훈장 전 현감 문영후와 각 면 훈장 5명, 각 면 교사장 5명, 강유 42명, 사원 21명이 참가했다.

대정현성은 성곽이 둘러쳐진 타원형의 성이다. 성벽 위에는 여장(성 위에 있는 낮은 담으로 총구와 타구가 있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회곽도를 오르기 위한 돌계단이 성문 옆에 축조되어 있다.

북성 가까이 정청(正廳)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놓고 초하루 보름마다 향궐만배(向闕萬拜)하는 곳인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남문에 들어서면 넓은 마당 한 가운데 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이 없이 홍살을 세워 댄 홍살문에 이른다. 홍살문에 들어서면 객사로 출입하는 문이 가운데 있고 좌우로 익랑을 둔 솟을대문에 이른다.

이 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중심으로 객사가 자리 잡고, 객사 앞쪽 좌우측에 객사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행랑채가 자리 잡고 있다.

현관의 집무소인 관아는 객사 서쪽에 성벽과 함께 하여 ‘ㄷ’자를 형성하고 있고 객사와 관아 사이에는 군관의 처소인 관청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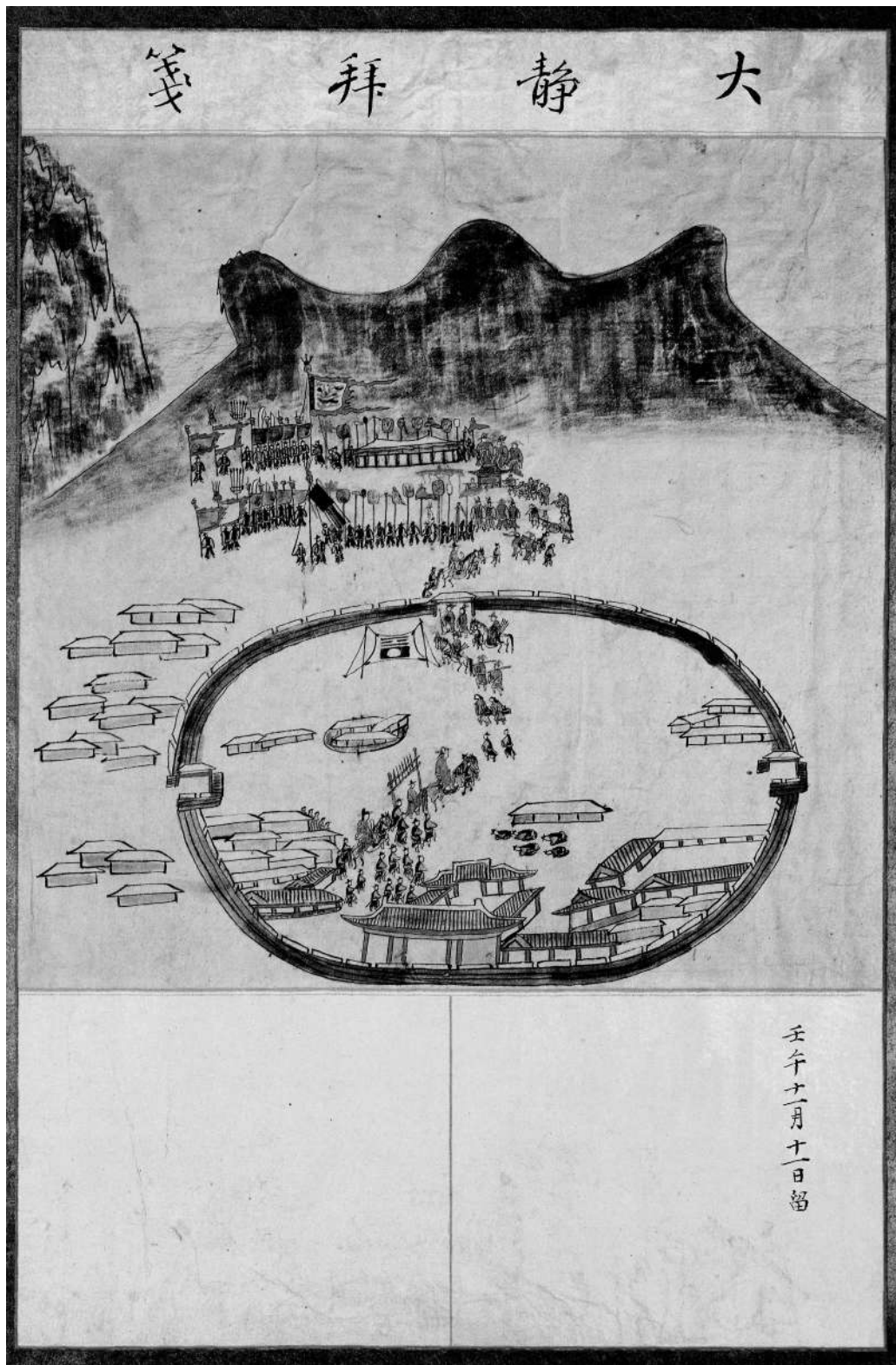
객사 동측에는 군기를 보관하는 군기고가 있으며, 군기고 남쪽에는 좌수와 별감이 근무하던 향청, 육방의 우두머리가 집무하던 작청 등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관아 남쪽에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성 안에는 각종 깃발이 도열되어 있다. 이형상 목사는 객관에 앉아 있다. 그 옆에는 주안상이 있고, 또 사원들이 그 앞에서 배례를 올리고 있다. 유강들은 붉은 옷차림으로 사원들과 함께 늘어서 있다.

객관 좌측에는 기수들이 잡고 있는 각종 깃발이 도열해 있다. 과녁과 물림폭이 시설되어 있고 그 옆에는 판정관과 깃발로 활의 적중여부를 알리는 사령 3명이 신호기를 눌린 채 엎드려 있다.

성 밖의 남쪽으로는 좌측으로부터 산방산, 바굼지오름[破軍山岳], 송악산이 있고, 섬은 우측으로부터 가파도[盖波島], 마라도, 형제도, 봉수로는 저성망(貯星望), 마을로는 모슬포의 초가가 보이고, 또 성 밖에도 초가가 있다. 특히 바굼지오름 남쪽으로는 문묘(文廟), 즉 대정향교가 보인다.



## 대정배전

1702년(숙종 28) 11월 11일 대정현에서 시행된 배전(拜箋)의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배전이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지방관이 그 소재지에서 임금에게 전(箋:書面)을 올려 하례(賀禮)의 뜻을 표하는 의식을 말한다.

대정현성은 성곽이 둘러쳐진 타원형의 성이다. 성벽 위에는 여장(성 위에 있는 낮은 담으로 충구와 타구가 있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회곽도를 오르기 위한 돌계단이 성문 옆에 축조되어 있다.

북성 가까이 정청(正廳)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놓고 초하루 보름마다 향궐만배(向闕萬拜)하는 곳인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남문에 들어서면 넓은 마당 한 가운데 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이 없이 홍살을 세워 댄 홍살문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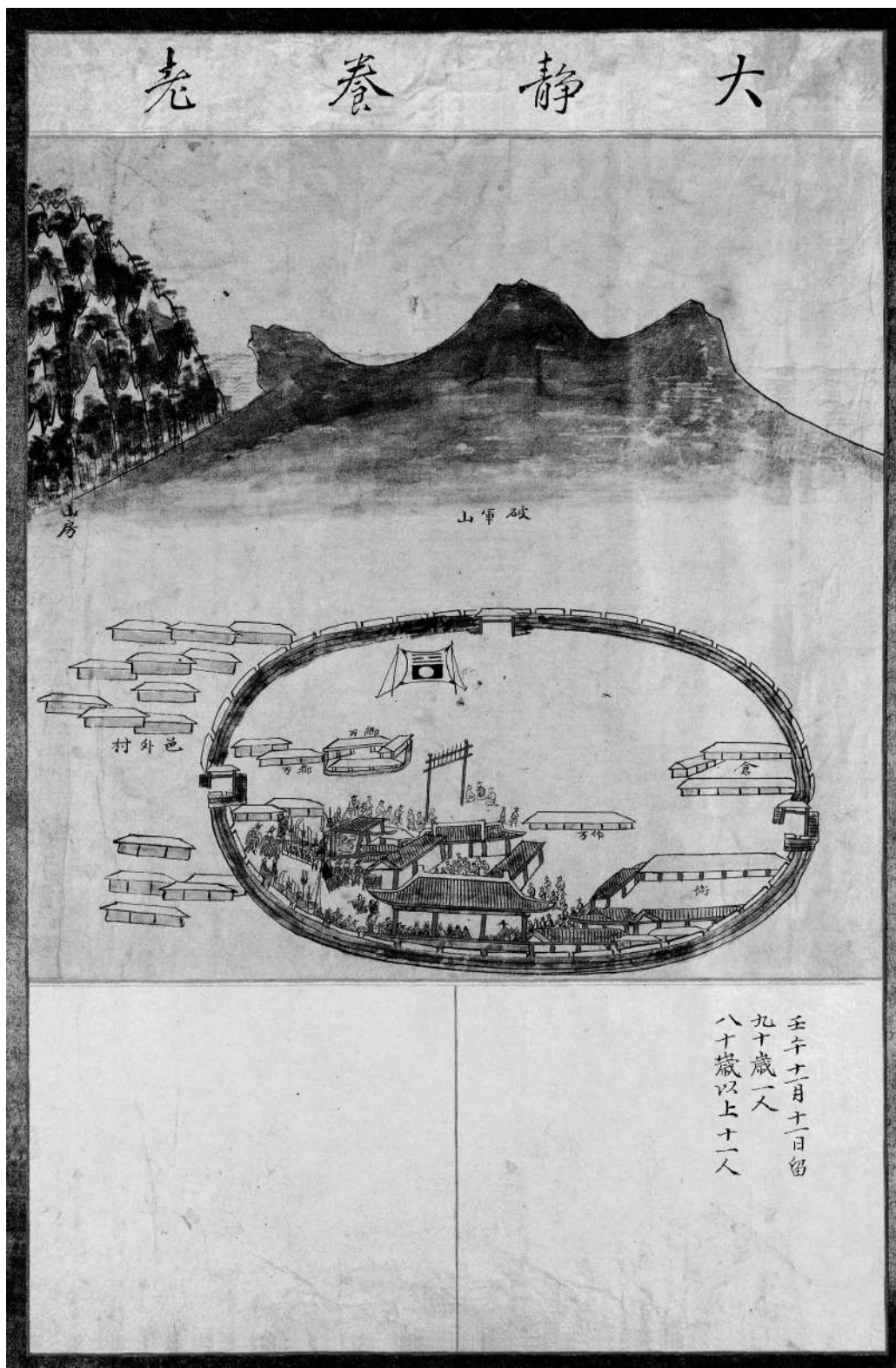
홍살문에 들어서면 객사로 출입하는 문이 가운데 있고 좌우로 익랑을 둔 솟을대문에 이른다.

이 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중심으로 객사가 자리 잡고, 객사 앞쪽 좌우측에 객사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행랑채가 자리 잡고 있다.

현관의 집무소인 관아는 객사 서쪽에 성벽과 함께 하여 ‘ㄷ’자를 형성하고 있고 객사와 관아 사이에는 군관의 처소인 관청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객사 동측에는 군기를 보관하는 군기고가 있으며, 군기고 남쪽에는 좌수와 별감이 근무하던 향청, 육방의 우두머리가 집무하던 작청 등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관아 남쪽에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읍내의 민가와 읍성 밖에 동성리로 추정되는 민가들이 보인다.



## 대정양노

1702년(숙종 28) 11월 11일, 대정현에서의 노인잔치 광경이다. 당시 대정현에는 80세 이상의 노인 11인, 90세 이상의 노인 1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목사의 순력시에 이와 같은 노인잔치는 거의 관례화 되어 있었다.

제주지방의 풍속 중의 하나가 인다수고(人多壽考:장수하는 사람이 많다)인데, 이원진의 <탐라지>에 의하면, 제주 가운데 한라산이 있어 남쪽 큰 바다의 독기는 산에 막히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기운이 더운 습기와 열기를 몰아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 내에서도 한라산 남쪽에 비하여 북쪽이 더욱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속설에는 봄·가을 동쪽 하늘에 나타나는 노인성을 보면 장수한다고 전해져 오는데, 이 노인성이 제주의 한라산에서 흔히 볼 수 있어 도민들 중에 장수하는 자가 많은 까닭으로 전해져 오기도 한다.







## 대정조점

1702년(숙종 28) 11월 10일, 대정현성의 성정군 조련과 대정현의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그림이다.

대정현성의 내부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대정현성은 성곽이 둘러쳐진 타원형의 성이다.

성벽 위에는 여장(성 위에 있는 낮은 담으로 총구와 타구가 있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회곽도를 오르기 위한 돌계단이 성문 옆에 축조되어 있다.

북성 가까이 정청(正廳)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놓고 초하루 보름마다 향궐만배(向闕萬拜)하는 곳인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남문에 들어서면 넓은 마당 한 가운데 두 기둥을 세우고 지붕 없이 홍살을 세워 댄 홍살문에 이른다. 홍살문에 들어서면 객사로 출입하는 문이 가운데 있고 좌우로 익랑을 둔 솟을대문에 이른다.

이 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중심으로 객사가 자리 잡고, 객사 앞쪽 좌우측에 객사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행랑채가 자리 잡고 있다.

현관의 집무소인 관아는 객사 서쪽에 성벽과 함께 하여 ‘ㄷ’자를 형성하고 있고 객사와 관아 사이에는 군관의 처소인 관청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객사 동측에는 군기를 보관하는 군기고가 있으며, 군기고 남쪽에는 좌수와 별감이 근무하던 향청, 육방의 우두머리가 집무하던 작청 등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관아 남쪽에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성 밖의 민가들은 성의 동쪽에 밀집되어 있다.

당시 대정현의 편제는 읍내 1리, 동면 9리, 서면 2리로 모두 12리에 민호는 797호이며, 전답은 149결이다. 성장 2인, 치총 4인, 성정군 224명, 군기, 문묘의 제기·제복·서책, 목자와 보인 123명, 말 849필, 흑우 228수, 창고의 곡식 1,950여 석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 모슬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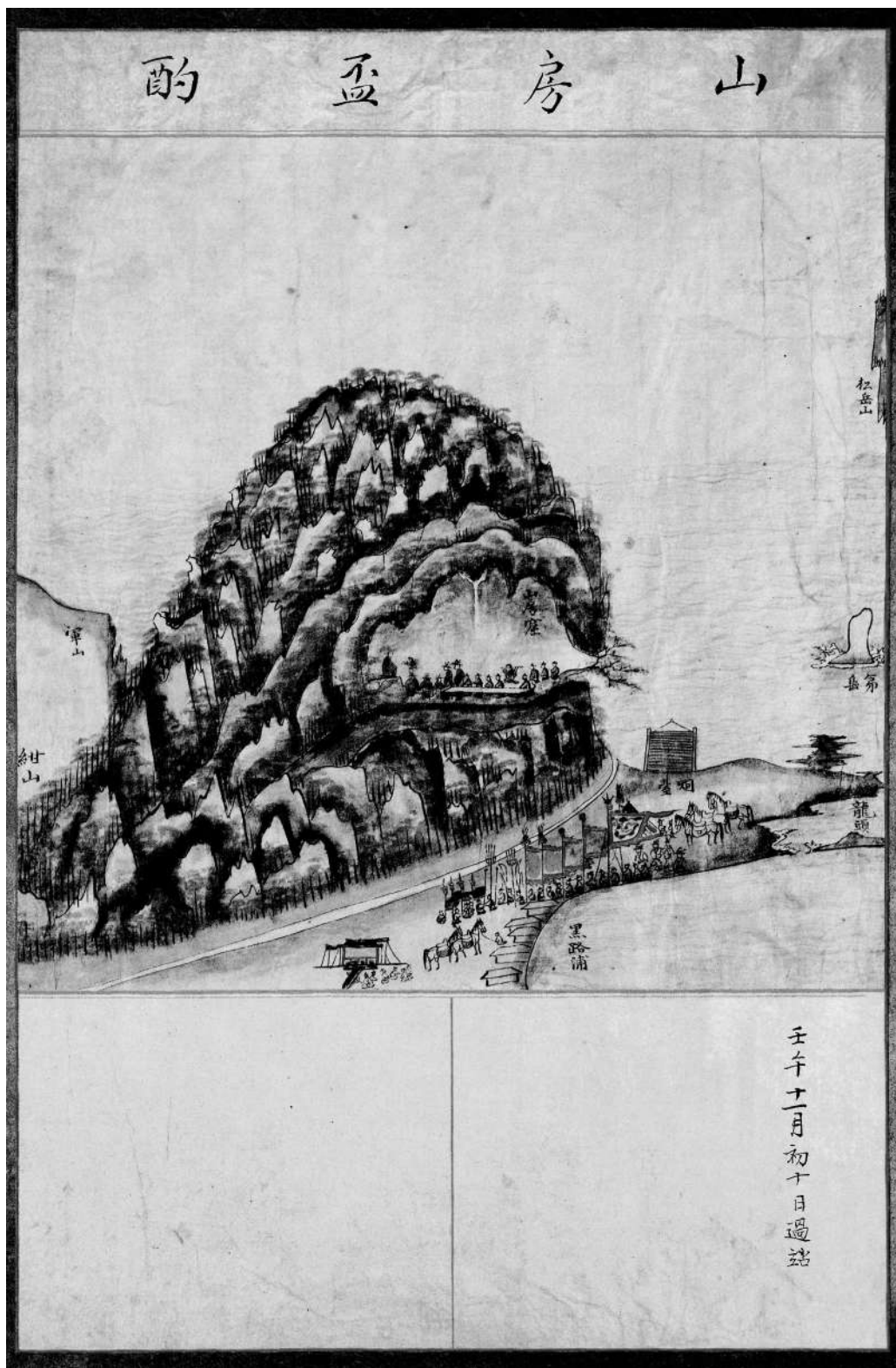
1702년(숙종 28) 11월 13일, 모슬진 군대를 점검하는 그림이다. 이형상 목사가 직접 점검하지 않고 군관인 전만호 유성서를 대신 보내 점검했다.

목사가 친히 점검하지 않고 장부상으로 확인한 경우는 이를 구별해 ‘점부(點簿)’라 한 듯하다. 점검 결과 조방장에 오세인, 방군·기병·보병이 24명이었다.

대정현성에서 모슬진에 이르는 주변 지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수연대와 모슬봉수의 위치, 모슬촌의 민가가 표기되어 있다.

모슬진은 원형의 성으로 성문이 동문 하나만 있다. 성문은 정면 1간의 루가 있는 우진각 초가다.

동문과 남성사이에 객사와 병고가 조금 떨어져서 ‘ㄴ’자를 형성하고 있고, 동문과 북성 사이에도 ‘ㄴ’자가 되게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건물들은 모두 우진각 초가로 되어 있다.



## 산방배작

1702년(숙종 28) 11월 10일, 산방굴에서 배작의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돌산인 산방산의 모습이 기골이 웅장하게 묘사되어 있다.

송악산, 형제도, 군산, 감산, 용두 등이 보이며, 도로, 산방연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사계리 포구가 흑로포로 표기되어 있다. 산방산 남쪽을 휘감은 도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다.

현재 산방산 입구에 수문장처럼 버티고 있는 노송이 이 그림에서도 노송처럼 그려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수령이 400년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형상의 <남환박물>에 의하면 “산방산은 대정현 동쪽 10리에 위치해 있으며 산의 높이 200척, 산의 둘레는 10리로 산 전체가 돌로 형성되어 있다. 남쪽 언덕에 큰 굴이 있는데, 굴암이라 이르며 물이 굴 위로부터 한 방울씩 떨어진다.

그 남쪽에 암문이란 굴이 있는데 그 벽 사이가 1척이며 깊이가 100척, 길이 50여 척에 이른다. 그 북쪽에 큰 굴이 있는데 깊이는 헤아릴 수 없으나 피생문(彼生門)이라 한다”하여 세 개의 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산장구마

1702년(숙종28) 10월 15일, 산장에서 말을 몰아 일정한 장소에 모으고 그 수를 확인하는 그림이다.

산장은 ‘산마(山馬)를 목양하는 목장’으로 한라산 중턱 이상에 설치됐는데, 효종 9년(1658) 제주 목사 이회(李禧)의 계청(啓請)에 따라 김만일(金萬鎰)의 후손들이 국가로부터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을 세습적으로 임명받으면서 비롯되었다.

이들 산장은 숙종 대를 거치면서 침장(針場), 상장(上場), 녹산장(鹿山場)으로 개편되었다. 이 그림은 세 군데 산장 중 한 목마장의 말들을 점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각 산장마다에는 원장과 사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원장은 우마를 모아놓기 위해 만든 원형의 목책이고, 사장은 모아놓은 우마를 한 마리씩 통과할 수 있게 만든 좁은 목책 통과로다.

모아놓은 우마가 이 사장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게 하면서 나라에 봉진할 우마를 간택하거나 우마의 질병, 증감의 숫자 등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는 원장 대신에 미원장(尾圓場)과 두원장(頭圓場)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사장을 만들어서 두 원장을 연결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우마를 먼저 미원장에 모아놓은 다음 사장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점검한 뒤에 다시 두원장에 모아놓고 있는 것이다.

사장은 우마의 수효를 파악하는데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상 혹은 다른 목장으로 우마를 보내기 위해 하나씩 붙들 수 있게 된 장치이기도 하다.

이날 산장의 점마는 제주관판, 정의현감, 산장감목관이 책임을 담당한 가운데 결책군 2,062명, 구마군 3,720명, 목자와 보인 214명 등 총 6,536명에 이르는 막대한 인원이 동원되었다.

성판악 바로 밑에 있는 산쪽 끝 지점에서부터 구마군이 말을 몰고 내려오면, 결책군들은 다른 목마장의 경계인 목책 바깥에 줄줄이 도열해 지킴으로써 말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미원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과는 다른 복장을 한 것으로 보아 목자들로 보인다. 이들은 원장에 모인 말들의 낙인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목마장의 말인지를 확인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장 바로 앞에는 제주관판, 정의현감, 감목관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말의 수와 낙인, 상태를 직접 점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점마를 통해 골라낸 공마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봉진되었다.

1. 제주목사가 조정의 지시에 따라 그 할당량을 3읍의 감목관에게 배정한다.
2. 3읍의 감목관은 각 목장에 공마에 충당할 마필의 수집을 명한다.
3. 각 목장에서는 구마군·결책군·목자 등을 동원하여 공마를 가려낸다. 이때 미원장에 모아놓은 마필들을 사장으로 통과시키면서 공마에 적합한 마필을 골라낸다.
4. 가려낸 공마를 소속 영문(營門)에 인도한다.
5. 제주·정의·대정 영문에서는 감목관의 책임 아래 습마(習馬) 6명이 각 목장에서 보내온 말의 마적(馬籍)·낙인자(烙印字)·말 주인(개인 말인 경우) 등을 확인한다.
6. 말의 나이, 키, 털빛, 건강, 조습실태 등을 조사하여 골라서 공마의 목록과 함께 보고한다.
7. 골라진 공마는 세목(細目)과 함께 조천포, 화북포로 운반해 진상선에 실어 조정에 바쳐진다.





## 서귀조점

1702년(숙종 28) 11월 5일, 서귀진의 조련과 군기 및 말을 점검하는 그림이다. 서귀진의 위치와 주변 섬의 위치가 잘 나타나 있다.

서귀진은 동문과 서문이 있는 타원형의 성이다. 성벽 위에는 여장이 설치되어 있고, 회곽도를 오르기 위한 돌계단이 성문 옆에 축조되어 있다.

성문 앞에는 웅성이 있고, 성문은 정면 1간의 루가 있는 우진각 초가다.

성 안의 북성 가까이에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객사 앞쪽에는 넓은 마당을 두고 남성에 붙여 성벽과 나란히 창고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는 병고가, 왼쪽에는 진졸청과 창고로 보이는 건물이 있다.

객사의 왼쪽에 있는 초가는 기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의 책임자가 거주하는 진사인 듯하다.

정의현감과 더불어 대정현감이 함께 참석했는데 이는 아마 다음 순력 지역이 대정현 지역이기 때문에 목사를 배행하기 위해 참석한 듯하다.

당시 서귀진 조방장은 원덕전이었으며 성정군 68명과 군기를 점검하고 목자와 보인 39명과 말 237필도 아울러 점검했다.

서귀진 소속의 봉수는 자배·호촌·삼매양 봉수, 연대는 금로포·우미·보목·연동 연대이다.



## 성산관일

1702년(숙종 28) 7월 13일, 성산일출봉에서 해 뜨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으로 일출봉과 우도의 지형이 자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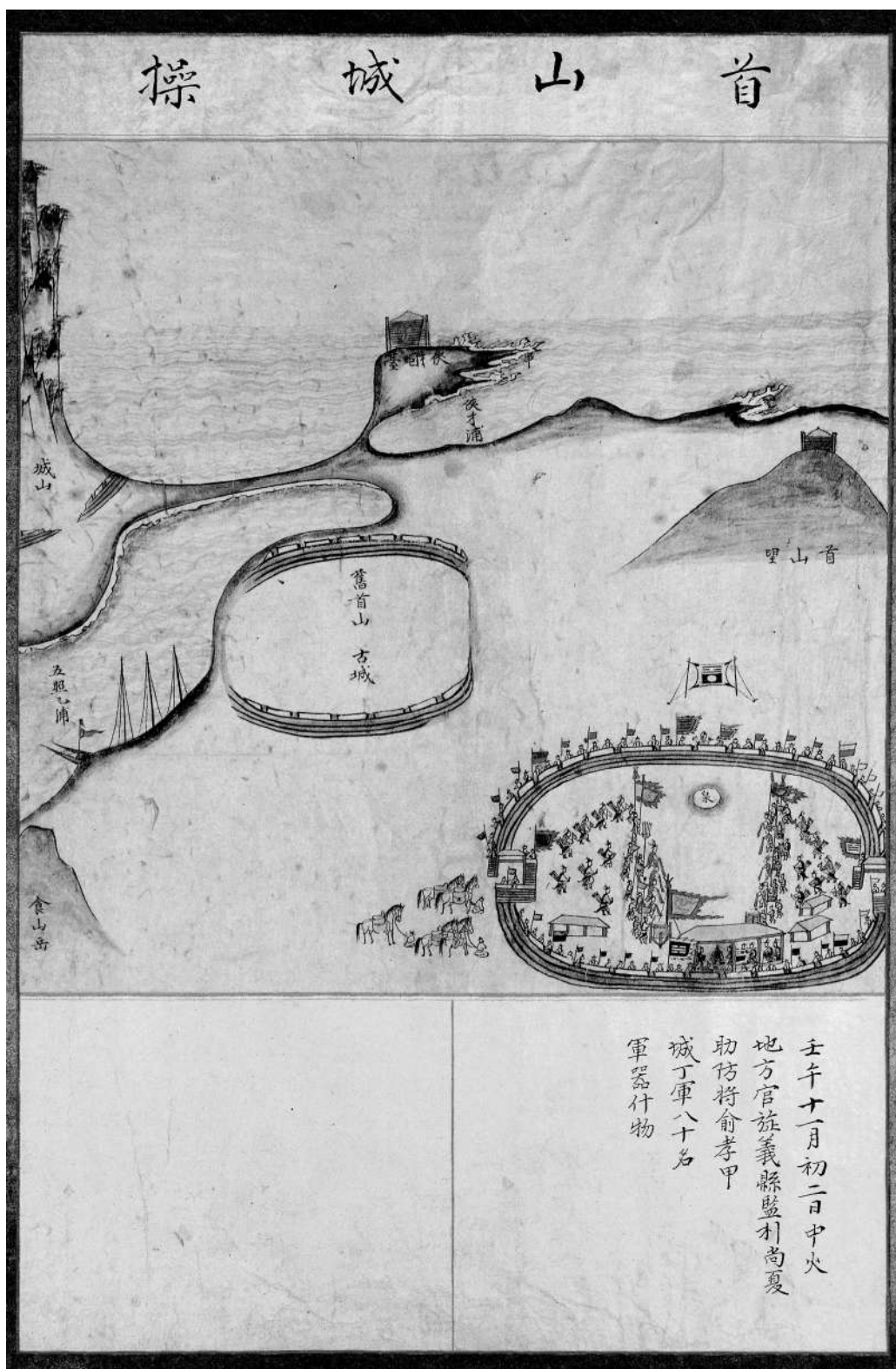
일출봉 입구에 진해망(鎭海望)의 옛터가 표시되어 있고, 그 위로 일출봉의 정상에 있는 성산망까지 오르는 등정길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성산망’은 성산 위에 있었던 망(望:봉수)을 일컫는다. 각교(刻橋)는 ‘깎아 만든 다리’를 뜻하는데, 성산을 오르는 길이 험난하므로 암반에다 계단을 새겨 만든 듯 하다. 일출봉 앞 평지에는 봉천수가 있으며, 이곳에서 하마(下馬)하고 걸어서 성산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

죽도와 동두 어영굴이 표기된 우도의 지형, 오조연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오른쪽 하단의 식산악(食山岳)은 ‘밥미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로, 지금 성산을 오조리에 있는 표고 60미터의 식산봉이다.

이 그림의 회화적 특성을 살펴보면, 관동팔경의 경치를 그림 민화풍의 그림과 비슷하다.

일출봉의 기암절벽을 독특하게 입체감을 살려 표현했다. 바다에는 파도무늬를 그려 넣고, 바닷가에는 부서지는 파도의 포말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특히 떠오르는 해의 모습이 회화적 특성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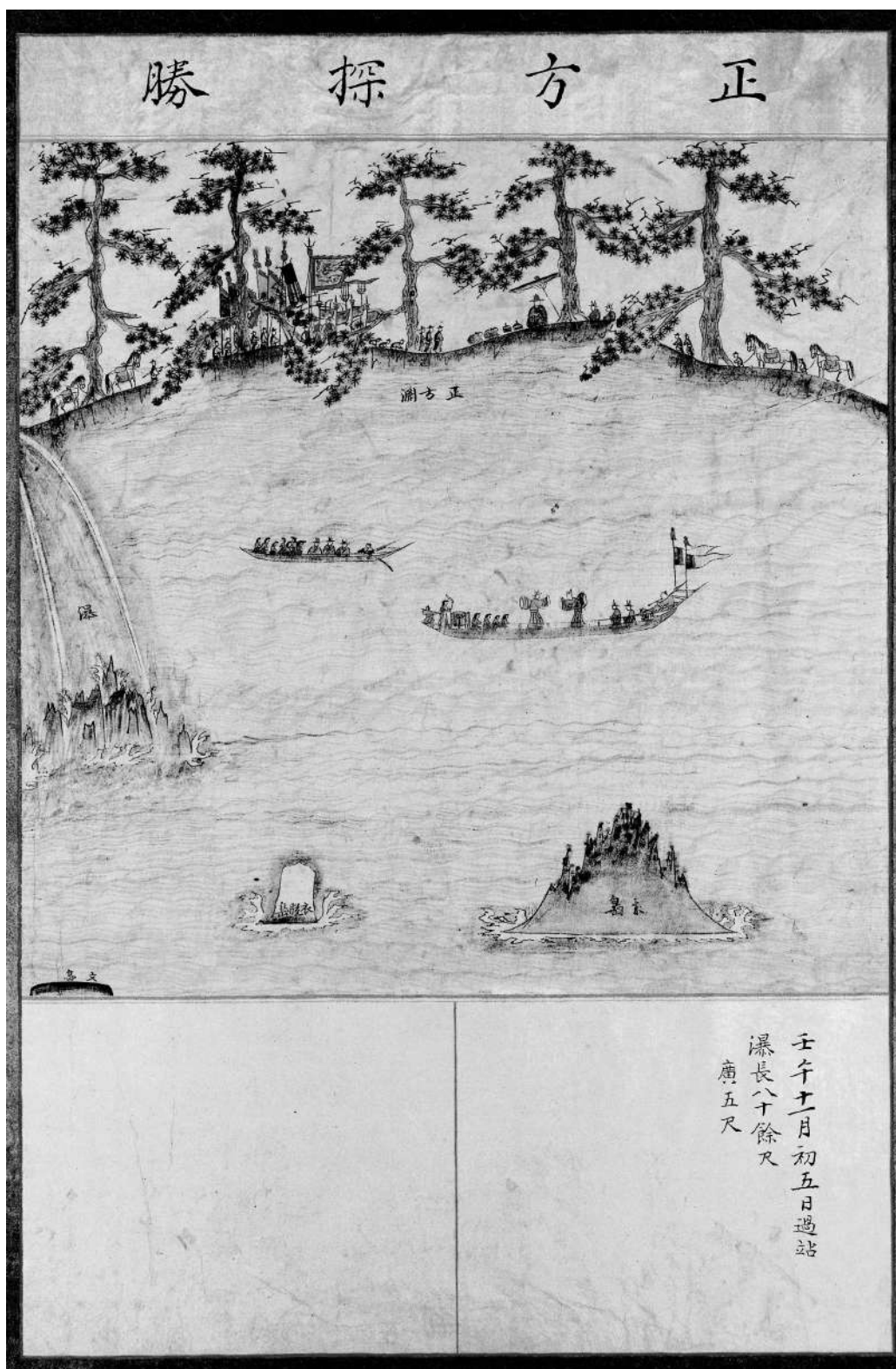
## 수산성조

1702년(숙종 28) 11월 2일 정의현 수산진성에서의 성정군 군사훈련을 점검하는 그림이다. 수산진성, 수산봉수, 협재연대, 구수산, 고성 위치가 상세하다.

수산진은 동문과 서문이 있는 타원형의 성이다. 성벽 위에는 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회곽도를 오르기 위한 돌계단이 성문 옆에 축조되어 있다.

성문 앞에는 웅성이 있고 성문은 정면 1간의 루가 있는 우진각 초가다. 성 안에는 북성 가까이에 객사가 자리 잡고, 객사 좌우에는 군기고 등의 건물들이 있다. 객사 앞쪽에는 넓은 마당을 두었으며 남성 앞에 샘이 있다.

정의현감 박상하가 참석했으며 조방장 유효갑을 비롯해 성정군 80명 및 군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수산진 관할의 봉수로는 지미·성산·수산 봉수가 있고, 연대에 협자·오소포·종달 연대가 있다.





## 정방탐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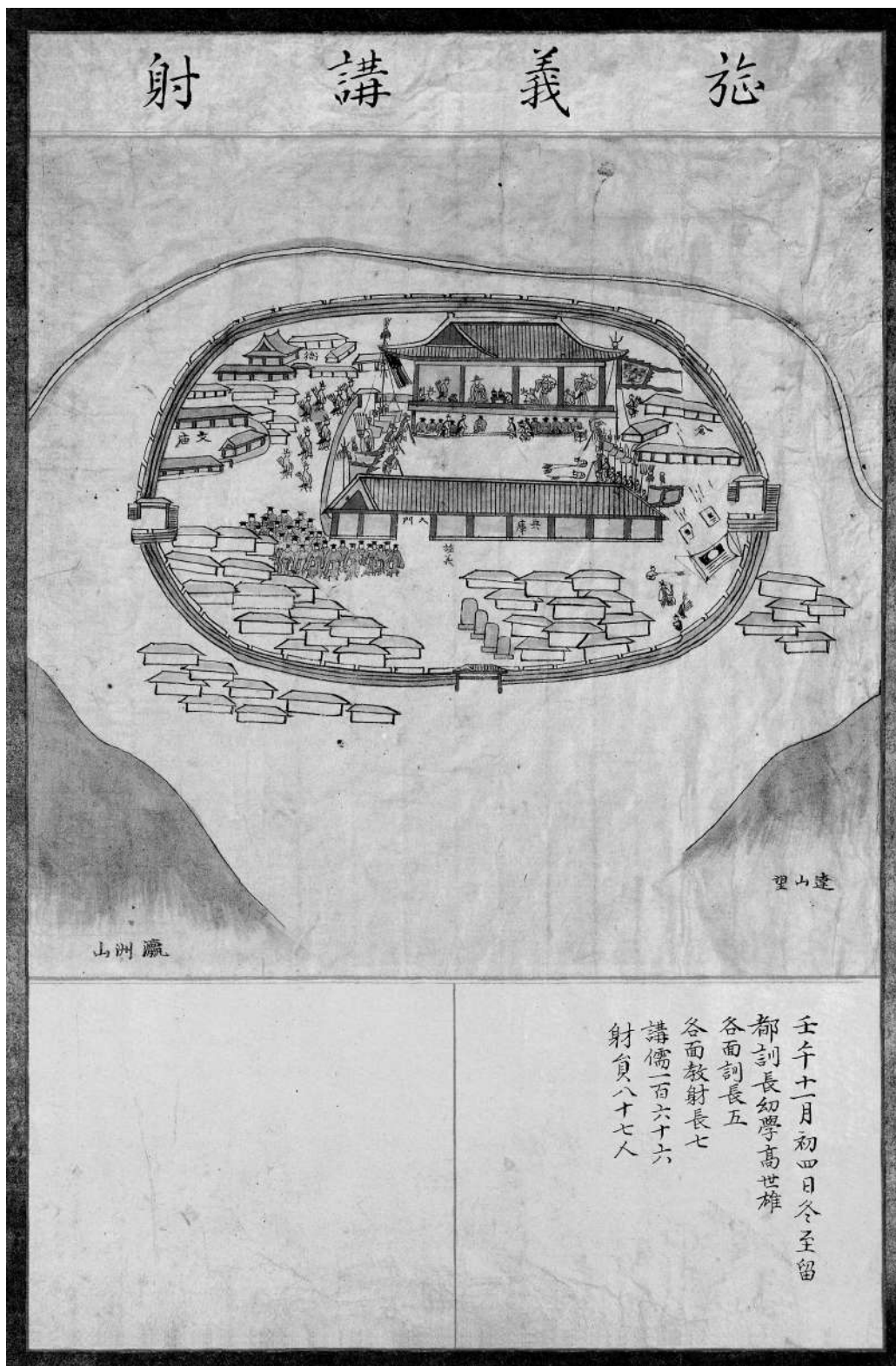
1702년(숙종 28) 11월 5일, 배를 타고 정방폭포를 탐승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폭포 위에 있는 소나무가 강조되어 있으며, 그 아래 정방연에서 배를 타고 놀이를 즐기고 있다.

부기의 내용으로 보아 정방폭포의 길이 80여 척, 너비 5척임을 알 수 있다.

이형상의 남환박물에 의하면 정방연은 정의현에서 서쪽 60리에 있으며 폭포 위에는 큰 소나무들이 있고 밑으로 바다가 있어 폭포가 바다에 직접 떨어져 가히 제일명구라 이르고 있다.

이 그림은 남쪽 바다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그려져 있는데, 파도의 모습과 폭포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물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해안 절벽 위의 노송들이 독특하게 그려져 있고 지금의 보목동 앞바다에 있는 싯섬(삼도)도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정의강사

1702년(숙종 28) 11월 4일 동짓날에 정의현에 머물면서 시행한 강사(講射), 즉 강(講) 받기 시험과 활쏘기 시험 장면을 그린 것이다.

대상은 강유(講儒)와 사원(射員)이다. 강 받기 시험은 유생(儒生)들에게 자신이 읽은 글을 시험관 앞에서 암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의현성은 성곽이 둘러쳐지고 동문, 서문, 남문이 세워져 있으며 그 중심지에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남문으로 들어서면 좌우에 민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다음에 병고에 설치된 1간 대문에 이른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있다. 마당 서쪽에는 현아인 일관현과 연결되는 문을 제외하고는 담장을 둘러 공간을 구획했다.

마당 북쪽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놓은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객사를 중심으로 그 우측에는 사자기가 있고, 정면 좌측과 우측에는 각종 깃발과 무사가 배열되어 있다. 객사 안에는 이형상 절제사가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주안상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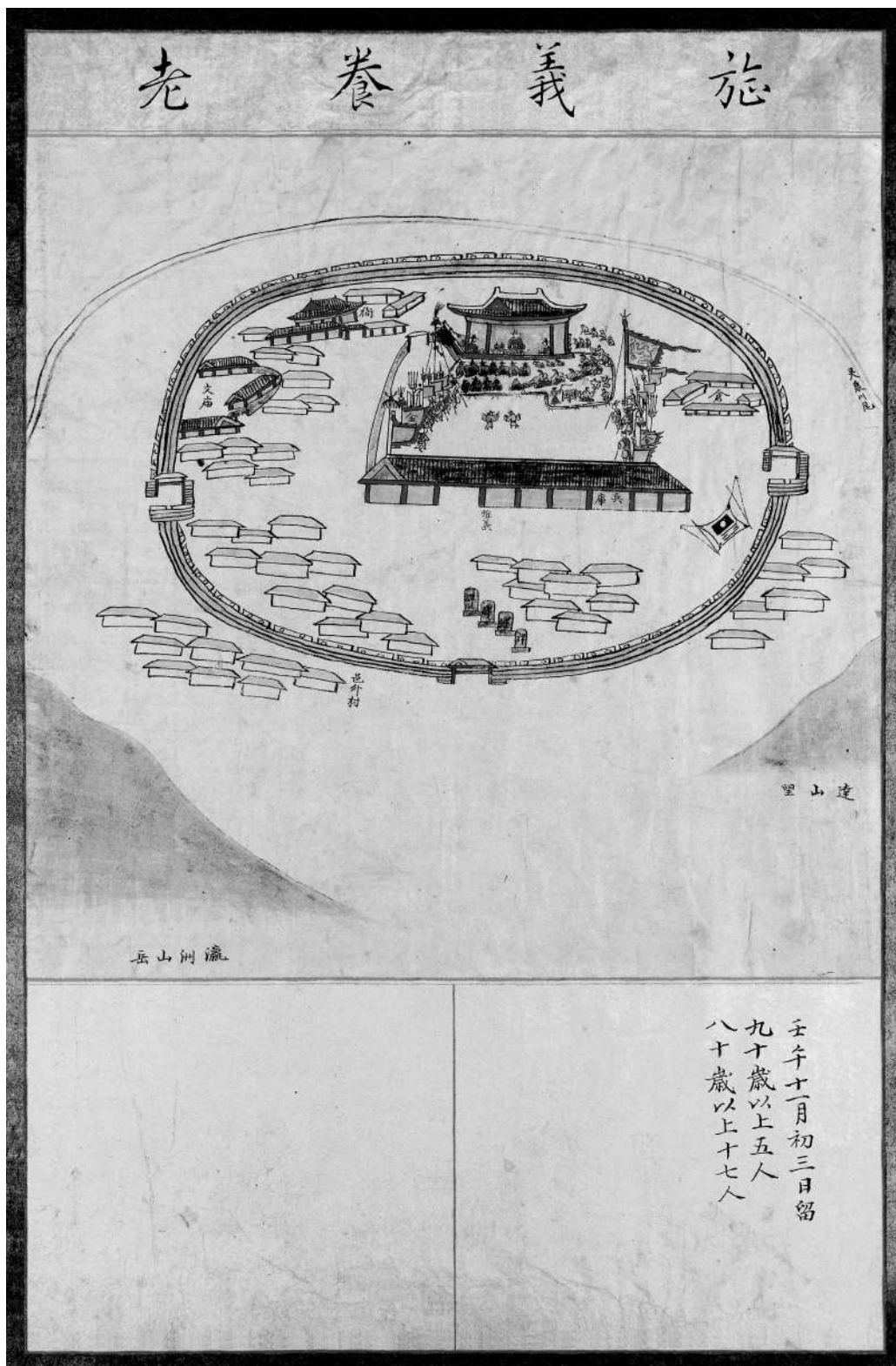
활을 쏘는 사람과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객사 밖에까지 늘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또 객사 앞에는 도훈장 5명과 강유, 각 면 교사장이 붉은 옷차림으로 앉아 있다. 특히 강유들도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이 날 훈장인 유학 고세웅, 각 면 훈장 5명, 각 면 교사장 7명,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16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87명의 사원(射員:활 쏘는 사람)이 재주를 겨루었다. 당시 정의현에 거주하는 사원은 350여 명이었다.

객사의 북서쪽 가까이에 현감이 집무하는 현아가 ‘口’자를 형성하고 있다. 그 남쪽으로 교육시설인 문묘(향교)가 주위에 별도로 담장을 두르고 ‘ㄷ’자를 형성하면서 자리 잡고 있다. 군사들의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는 객사 마당쪽 동측에 ‘口’자를 형성하고 있다.

성 밖에는 오름으로 영주산이 있고 봉수로는 달산망이 있으며, 또 초가가 보인다.

정의현성의 직접적인 관할 봉수는 남산, 독자, 달산, 토산, 연대는 말등포, 천미, 소마로, 별포 등이 있었다.



## 정의양노

1702년(숙종 28) 11월 3일, 정의현성에서 치러진 노인잔치 광경이다.

정의현성은 성곽이 둘러쳐지고 동문, 서문, 남문이 세워져 있으며 그 중심지에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남문으로 들어서면 좌우에 민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다음에 병고에 설치된 1간 대문에 이른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있다. 마당 서쪽에는 현아인 일관헌과 연결되는 문을 제외하고는 담장을 둘러 공간을 구획했다.

마당 북쪽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놓은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객사의 북서쪽 가까이에 현감이 집무하는 현아가 ‘口’자를 형성하고 있다.

그 남쪽으로 교육시설인 문묘(향교)가 주위에 별도로 담장을 두르고 ‘ㄷ’자를 형성하면서 자리 잡고 있다. 군사들의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는 객사 마당쪽 동측에 ‘口’자를 형성하고 있다.

노인잔치는 객사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이형상 제주목사는 북쪽을 향해 있으며 노인들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 그림 아래 기록에 의하면 이날 참석한 정의현에 사는 80세 이상의 남녀 노인은 17명, 90세 이상의 남녀 노인은 5명이다.

이형상 제주목사 앞에는 가야금을 타는 여인이 4명, 대금을 부는 남자가 2명, 장구를 치는 여인이 1명, 틀에 달고 채로 치는 북을 두드리는 1명 등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들과 춤을 추는 남자 2명의 모습이 보인다.

제주지방의 풍속 중의 하나가 인다수고(人多壽考:장수하는 사람이 많다)인데, 이원진의 <탐라지>에 의하면, 제주 가운데 한라산이 있어 남쪽 큰 바다의 독기는 산에 막히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기운이 더운 습기와 열기를 몰아내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제주 내에서도 한라산 남쪽에 비해 북쪽이 더욱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속설에는 봄·가을 동쪽 하늘에 나타나는 노인성을 보면 장수한다고 전해져 오는데, 이 노인성이 제주의 한라산에서 흔히 볼 수 있어 도민들 중에 장수하는 자가 많은 까닭으로 전해져 오기도 한다.



## 정의조점

1702년(숙종 28) 11월 2일, 정의현성에서의 조련(操鍊)과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그림이다. 정의현성, 달산봉수의 위치와 읍외촌, 궁산촌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정의현성은 성곽이 둘러쳐지고 동문, 서문, 남문이 세워져 있으며 그 중심지에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남문으로 들어서면 좌우에 민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다음에 병고에 설치된 1간 대문에 이른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있다. 마당 서쪽에는 현아인 일관헌과 연결되는 문을 제외하고는 담장을 둘러 공간을 구획했다.

마당 북쪽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놓은 객사가 자리 잡고 있다. 객사의 북서쪽 가까이에 현감이 집무하는 현아가 ‘口’자를 형성하고 있다.

그 남쪽으로 교육시설인 문묘(향교)가 주위에 별도로 담장을 두르고 ‘ㄷ’자를 형성하면서 자리 잡고 있다. 군사들의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는 객사 마당쪽 동측에 ‘口’자를 형성하고 있다.

성 안의 민가들은 병고 남쪽과 서쪽에 밀집되어 있으며 성 밖의 민가 또한 성의 남쪽에서 서쪽에 밀집되어 있다.

당시 정의현은 읍내 1리, 동면 10리, 서면 12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호는 1,436호이며, 전답은 140결이다. 성장(城將) 2인, 치총(雉摠) 4인, 성정군 664명과 제반군기는 물론 목자와 보인 190명, 말 1,178필, 흑우 229수, 창고의 곡식 4,250여 석을 점검했음을 알 수 있다.

정의현성의 직접적인 관할 봉수는 남산, 독자, 달산, 토산, 연대는 말등포, 천미, 소마로, 별포 등이 있었다.





## 천연사후

1702년(숙종28) 11월 6일, 천지연 폭포에서의 활을 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폭포의 반대편에 과녁을 설치해 화살을 쏘고 있는데, 폭포의 좌우에 줄을 동여매고 그 줄을 이용해 추인(芻人:짚이나 풀로 만든 인형)을 좌우로 이동하게 했다.

이와 같은 추인은 주로 기병(騎兵)들의 화살을 쏘는 표적으로 주로 이용되었으나, 여기서는 과녁을 향해 쏜 화살을 상대편에서 추인에게 쏘으면 이쪽에서 줄을 당겨 추인에게 쏜 화살을 건네받는 것이다.

현폭사후와 더불어 이 그림에서는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폭포에서 단순하게 경치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을 이용해 무예를 즐기는 호방한 모습까지 엿볼 수 있다.

천지연폭포의 길이 50여 척, 너비 10여 척이라 부기되어 있어 정방폭포에 비해 폭포의 길이는 짧으나 너비는 그 배에 해당한다.

폭포의 좌우는 마치 깎인 봉우리가 서로 포옹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 마치 활에 화살을 당긴 형상을 하고 있다.



## 현폭사후

1702년(숙종 28) 11월 6일, 현재의 중문 천제연폭포에서 활 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대정 지경임을 표시하는 글자가 보이며 천제연폭포를 상폭과 하폭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폭포의 반대편에 과녁을 설치해 화살을 쏘고 있는데, 폭포의 좌우에 줄을 동여매고 그 줄을 이용해 추인(芻人: 짚이나 풀로 만든 인형)을 좌우로 이동하게 했다.

이와 같은 추인은 주로 기병(騎兵)들의 화살을 쏘는 표적으로 주로 이용되었으나, 여기서는 과녁을 향해 쏜 화살을 상대방에서 추인에게 쏘으면 이쪽에서 줄을 당겨 추인에게 쏜 화살을 건네받는 것이다.

천연사후와 더불어 이 그림에서는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폭포에서 단순하게 경치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을 이용해 무예를 즐기는 호방한 모습까지 엿볼 수 있다.

폭포의 길이 50여 척, 너비 5척이라 부기하였다.

상폭 서쪽 암벽에는 임관주의 다음과 같은 시가 전해 진다.

천제연 열린 곳에 큰 폭포 흘러내려

총석(叢石)으로 옮겨오고 깊은 못에 쏟아지네.

추인은 화살을 지고 공중을 걸어가니

제일 기이하고 볼만한 것이 이 사후가 아닌가.



## 감귤봉진

망경루 앞뜰에서 각 종류의 감귤과 한약재로 사용되는 귤껍질을 봉진하는 그림이다. 감귤의 포장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망경루 앞뜰에서 여인들이 귤을 종류별로 나누고 있고, 이형상 목사는 연회각에 앉아 이를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여인들 옆에는 남정들이 나무통과 짚단을 만들고 있다. 감귤을 봉진하는 과정에서 짓눌려서 훼손되거나 썩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짚단을 이용해 싸고 나무통에 다른 물건과 함께 넣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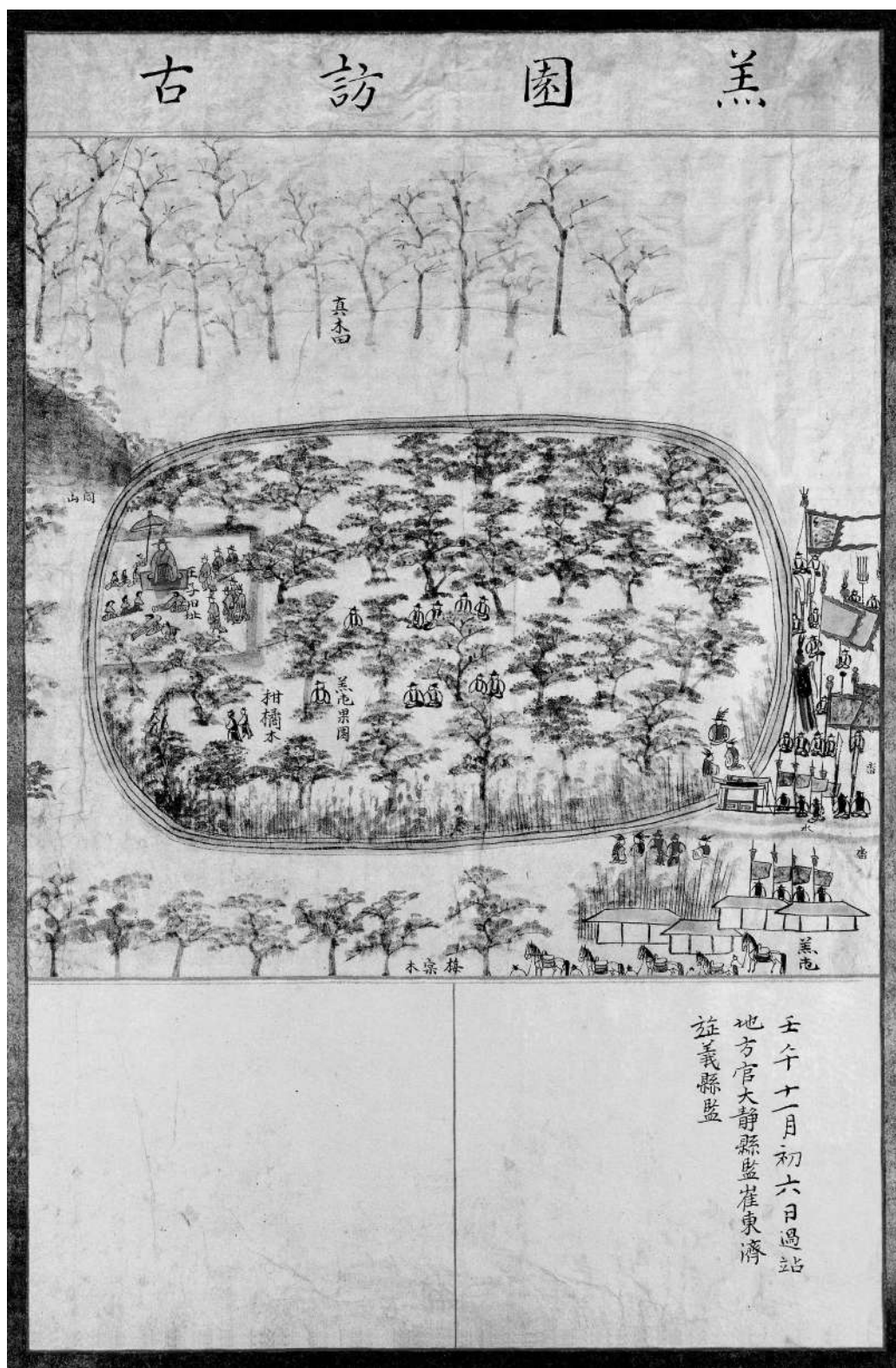
그림 아래 내용에 적힌 귤 종류는 금귤, 감자, 금귤, 유감, 동정귤, 산귤, 청귤, 유자, 당유자, 치자, 진피, 청피 등이다.

이렇게 봉진된 감귤은 천신용과 물선진상용으로 활용되었다. 천신용은 예조에 보내어 조경묘(肇慶廟), 종묘(宗廟), 경모궁(景慕宮), 효정전(孝定殿), 산릉(山陵), 휘정전(徽定殿)의 순서에 따라 제사용 천신과일로 나누어졌다. 물선진상용 귤은 대전, 대왕대비전,王大비전, 대비전 순서로 나누어졌다.

영조(1724)대 이후로는 임금의 특명으로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에게 제주 귤을 하사하면서 제술(製述)을 시험하던 황감제(黃柑製)라는 시험제도가 생겨나기도 했다. 이에 수석으로 합격하면 문과의 전시에 곧바로 나아가는 특전을 베풀기도 했다.

감귤의 봉진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매년 8월 귤나무의 상태를 조사하고, 귤의 수를 상세하게 조사해 보고한다. 제주성 근처의 과원은 제주목사가 직접 시찰하고, 먼 마을에는 비장(裨將)을 파견해 일일이 과실 수를 조사해 문부에 기재한다. 봉진 시기가 오면 3읍의 수령이 책임지고 문부에 기재된 수에 맞추어 귤을 영문에 가져오게끔 한다.
2. 매년 9월에 제일 먼저 유자를 봉진한다.
3. 매년 10월에 당금귤을 천신용으로 예조(禮曹)에 보낸다. 물선진상은 초운에서 7운까지 이루어졌는데, 물선진상용 귤의 종류는 당금귤·금귤·감자 등이었다.
4. 매년 11월에 유감·동정귤·당유자·감자·산귤 등이 천신용과 물선진상용으로 봉진되었다.
5. 매년 2월에 청귤이 청신용과 물선진상용으로 봉진되었다. 청귤은 겨울을 넘겨야 제맛이 나기 때문에 새해 들어 처음 올리는 천신용으로 봉진되었다.





## 고원방고

1702년(숙종 28) 11월 6일, 고둔과원(羔屯果園)에서 왕자구지(王子舊地)를 탐방하는 그림이다.

과원 좌측에 ‘왕자구지’라 되어 있고, 그곳에서 기녀들이 거문고를 연주하는 가운데 풍악을 즐기고 있다.

과원의 방풍림으로 대나무가 심어져 있고 과원의 밖에는 참나무밭과 매화나무가 많이 있었으며, 운랑천으로 추정되는 물과 인근에는 그 물을 이용한 논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원에 있는 감귤나무는 과실 익어가는 색깔을 달리하여 여러 품종이 재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고둔마을은 고둔과원 근처에 형성되었던 마을로, 지금의 서귀포시 용흥동 염둔마을을 가리킨다.

고둔과원은 현재 강정동 2012번지 부근이며 조선시대 때부터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둔과원 안에는 왕자구지가 있어서 당시에는 제주로 부임하는 목사들이 즐겨 찾는 경승지였다.

<남환박물>에는 고둔이 ‘고득중 감사(高得宗 監司)의 옛 집터’가 있는 곳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원진의 <탐라지(1956년)>에는 “고둔과원은 대정현서 동쪽 55리에 있으니, 고득중의 농막 터인데 지금도 주춧돌과 계단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득중은 부친 고봉지(高鳳智)를 따라 10세 때 상경했다. 효행이 두터워서 1413년(태종 13) 벼슬에 천거되어 직장(直長)을 지내다가 이듬해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대호군(大護軍), 예빈사판관(禮賓寺判官) 등의 벼슬을 지냈다.

1427년(세종 9) 문과증시에 급제하여 제주목마장에 관해 세종의 자문에 응하며,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두 차례나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439년 통신사로 일본에 가 천황의 서계(書契)를 가지고 돌아온 후 한성판윤,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제주에는 기록상 3번 다녀갔는데 한 번은 배가 난파되기도 했다. 황희(黃喜)와는 제주마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으며, 안평대군(安平大君)과는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에 그의 찬시(讚詩)가 올라있을 정도다.

관덕정 창건 당시 고득중의 간청으로 안평대군이 관덕정의 현판글씨를 써주기도 했다. 안평대군이 써준 현판은 후에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다.

고득중은 특히 문장과 서예에 뛰어났으나, 전하는 저술이나 작품은 없고,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몇 편의 시가 전한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 공마봉진

진상에 필요한 말을 각 목장에서 징발하여 제주목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1702년(숙종 28) 6월 7일에 실시되었다. 목자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말들을 이끌고 목사 앞을 지나며 점검하고 있다.

공마점검은 관덕정 앞에서 목사가 입회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공마봉진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대정현감 최동제를 차사원(差使員)으로 임명했다.

당시 봉진되었던 말은 어승마 20마리, 연례마 8마리, 차비마 80마리, 탄일마 20마리, 동지마 20마리, 정조마 20마리, 세공마 200마리, 흥구마 32마리, 노태마 33마리 등 총 433마리였고, 검은 소 20마리였다. 어승마와 차비마는 식년마다 바쳤으므로, 이 해가 식년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마는 다음 공과 같은 절차에 따라 봉진되었다.

1. 제주목사가 조정의 지시에 따라 그 할당량을 3읍의 감목관에게 배정한다.
2. 3읍의 감목관은 각 목장에 공마에 충당할 마필의 수집을 명한다.
3. 각 목장에서는 구마군·결책군·목자 등을 동원하여 공마를 가려낸다. 이때 미원장에 몰아넣은 마필들을 사장으로 통과시키면서 공마에 적합한 마필을 골라낸다.
4. 가려낸 공마를 소속 영문(營門)에 인도한다.
5. 제주·정의·대정 영문에서는 감목관의 책임 아래 습마(習馬) 6명이 각 목장에서 보내온 말의 마적(馬籍)·낙인자(烙印字)·말 주인(개인 말인 경우) 등을 확인한다.
6. 말의 나이, 키, 털빛, 건강, 조습실태 등을 조사하여 골라서 공마의 목록과 함께 보고한다.
7. 골라진 공마는 세목(細目)과 함께 조천포, 화북포로 운반해 진상선에 실어 조정에 바쳐진다.



## 굴림풍악

망경루 후원 굴림에서 풍악을 즐기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순력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림에 나타나는 열매의 색깔로 보아 과일이 익어가는 시기인 듯 하다.

굴나무들의 과일 색이 다른 것은 나무마다 품종이 다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제주성 안에는 동과원, 서과원, 남과원, 북과원, 중과원, 별과원 등 6개 과원이 있었는데, 이 그림의 정경을 보면 왼편 아래쪽에 망경루, 그 오른쪽에 굴림당, 오른쪽에 교방(敎坊), 위편에 병고(兵庫)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북과원’이다.

과수원 주위에는 대나무를 심어 방풍을 하고 있다. 대나무는 화살용으로 공납을 했고, 대나무밭에 감귤을 저장하는 데도 요긴하게 이용되었다.

과거에 제주도에서 심었던 대나무류는 왕대와 이대의 두 종류가 있었다. 이 그림의 대나무는 높이로 보아 크게 자라는 왕대로 추정된다.

그림의 하단에는 임오년(1702년) 삼읍의 감귤 결실수를 표기하고 있는데, 당금귤 1,050개, 감자 48,947개, 금귤 10,831개, 유감 4,785개, 동정귤 3,364개, 산귤 185,455개, 청귤 70,438개, 유자 22,041개, 당유자 9,533개, 등자귤 4,369개, 석금귤 1,021개, 치자 17,900개, 지각 16,034개, 지실 2,255개 등으로 귤 종류와 개수를 상세하게 적고 있어, 당시 귤 관리가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엿보게 한다.

## 「 우리고장의 설촌유래 」 자료조사위원

조사위원	조사지역 및 내용	비 고
강태전	o 서귀포동부 마을의 설촌유래	구 서귀읍 지역
진대호	o 서귀포서부 마을의 설촌유래	구 중문면 지역
오만석	o 대정읍 마을의 설촌유래	
정수현	o 서귀포시 읍면동의 유래 o 남원읍 마을의 설촌유래	
강성수	o 성산읍 마을의 설촌유래	
강완수	o 안덕면 마을의 설촌유래	
송심자	o 표선면 마을의 설촌유래	





## 우리고장의 설촌유래

2009년 12월 24일 인쇄

2009년 12월 28일 발행

---

발행인 : 서귀포문화원장 김 병 수

발행인 : 서귀포문화원

서귀포시동홍동 453-1

Tel : (064)733-3789

인쇄처 : 디자인 전문회사 오디콤

Tel : (064)762-0745

---

<비매품>

·본 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발간하였습니다.